



'92년생 3총사' 벤투호 선봉 나선다

2022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 5일 튀르키예와 격돌 손흥민·황의조·이재성 출격 유럽파 트리오 활약 기대 ↑

벤투호의 '1992년생 유럽파 트리오' 손흥민(토트넘)-황의조(보르도)-이재성(홀슈타인 킬)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의 선봉으로 나선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5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튀르키예와 월드컵 2차 예선 H조 4차전을 치른다.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은 코로나 19 여파로 연기를 거듭했고, 이런 와중에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일정이 꼬였다.

결국 아시아축구연맹(AFC)은 팀별로 북한과 치른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로 하고, 잔여 경기를 한국에서 치르기로 했다. AFC의 결정에 따라 한국(승점 7·골득실+10)은 레바논(승점 7·골득실+4)과 나란히 2승 1무의 성적으로 동률이 됐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H조 1위로 올라섰다.

벤투호는 5일 튀르키예와 4차전을 시작으로 9일 스리랑카, 13일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손흥민.

연합뉴스

레바논과 차례로 격돌해 최종예선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국내 팬들의 관심은 벤투호의 '1992년생 동갑내기'로 유럽파 3총사인 손흥민-황의조-이재성에게 쏠린다.

이들 3인방은 모두 2020-2021시즌 소속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손흥민은 최고의 '기록 제조기'였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

대에서 정규리그 17골 10도움, 유로파리그 3골 1도움, 유로파리그 예선 1골 2도움, 리그컵 1골, FA컵 4도움을 작성하며 총 22골 17도움을 기록했다.

시즌 22골과 시즌 17도움은 모두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기록이다.

손흥민은 정규리그 17골로 차범근 전 감독이 1985-1986시즌 레버쿠젠 소속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작성한 '한국 선수 단일 시즌 유럽리그 최다골(17골)' 타이 기록까지 세웠다.

벤투호에서 손흥민과 최전방에서 '칼떡궁합'을 펼치는 황의조의 활약도 뛰어났다.

황의조는 2020-2021시즌 프랑스 리그1에서 12골을 터뜨리며 유럽 무대 진출 두 시즌 만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12골은 보르도 팀 내 최다득점이다. 더불어 지난 시즌 득점(6골)의 2배였다.

이재성 역시 독일 2부 분데스리가 홀슈타인 킬에서 2선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으며 정규리그에서 5골 6도움의 '알짜 활약'을 펼쳤다. 시즌 전체로 따지면 8골 7도움이다.

이재성은 '동갑내기 친구' 손흥민과 황의조에 대해 "힘과 자국이 된다"라며 "손흥민과 황의조는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좋은 날이 더 올 것이다. 오랜만에 대표팀에서 만나 어떻게 경기를 치를지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대표팀은 2019년 9월 튀르키예와 친선 경기에서 2-0으로 승리를 따낸 만큼 홈에서도 완승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튀르키예와 역대 상대 전적에서 3승 1패로 앞선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치러진 첫 대결에서 2-3으로 패했지만 이후 3연승을 거두며 압도하고 있다.

또 한 번 슈퍼 코리안데이?

5일 류현진·김광현 출격 동반 선발승 재현 관심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올 시즌 처음으로 '같은 날' 빅리그 마운드에 오른다.

국내 야구팬들은 작년 9월 25일(한국시간) 류현진과 김광현이 동반 선발승을 거뒀던 짜릿한 장면을 다시 떠올린다.

류현진은 한국시간으로 5일 8시 7분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세일런 필드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이날 9시 15분에는 김광현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벌이는 신시내티 레드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나선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3일 휴스턴과 3연전 선발 로테이션을 공개하며, 첫날(5일) 선발로 류현진을 예고했다. 류현진은 강한 비바람을 뚫고 선발승을 거둔 5월 29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 이후 여세를 쉬고서 마운드에 선다.

류현진은 올 시즌 10경기에서 5승 2패 평균자책점 2.62를 기록 중이다. 휴스턴이 선발 로테이션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게 함께 뛰던 잭 그레이니카가 5일 토론토전에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2016년 다저스를 떠난 그레이니카와 3번 선발 맞대결에 1승 평균자책점 1.89로 잘 던졌다.

2019년 3월 29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개막전에서는 6이닝 4피안타 1실점 해 승리를 챙겼다.

김광현은 일찌감치 5일 신시내티전 등판이 확정됐다.

김광현은 올해 4월 24일 홈 경기에서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올 시즌 첫 승을 거두는 등 신시내티를 상대로 개인 통산 3경기에 등판해 3승 평균자책점 0.54로 호투했다. 올 시즌 신시내티전 이후 6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고 3패만(시즌 성적 1승 3패 평균자책점 3.65) 당한 김광현에게 5일 경기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류현진과 김광현은 총 4차례 같은 날에 선발 등판했다.

3번 승패가 엇갈렸던 둘은 2021년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9월 25일에 '동반 선발승'을 거뒀다.

한국인 투수가 같은 날 동반 선발승을 거둔 건, 2005년 8월 25일 박찬호(당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서재응(당시 뉴욕 메츠) 이후 15년 만이었다.

아찔한 순간... 김하성 부상 아웃

수비 도중 같은 팀 팬과 충돌 더그아웃서 작은 소동 일어나

내야수 김하성과 외야수 토미 팸(이상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수비 중 충돌한 뒤 샌디에이고 더그아웃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둘은 3일(한국시간)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서 1-1로 맞선 4회말 1사 만루에서 뜬공을 잡으려다가 제대로 플레이를 하지 않아 부딪혔다.

포구 위치를 볼 때 앞으로 달려 나온 팸이 공을 잡는 게 바람직했다. 공에 집중한 나머지 좌익수 영역까지 달려간 김하성의 욱이 앞섰다.

부딪친 팸과 김하성은 동시에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김하성은 그 상황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떨어진 공을 주워 즉시 3루수 매니 마차도에게 던졌고, 이닝이 마무리 됐다.

한동안 그라운드에 쓰러진 팸은 스스로 일어나 걸었고, 김하성은 트레이너의 부축을 받고 더그아웃으로 들어왔다. 경기 후 현지 언론 인터뷰를 보면, 팸은 더그아웃에서 화를 냈다.

자신이 잡아야 할 공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다가 보비 디커슨 3루 주루 코치와 더그아웃에서 다툼 뻔했다.

김하성과 부딪쳐 팸을 꺾매고 추가로 컴퓨터단층촬영(CT) 정밀 검진도 해야 하는 팸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콜 플레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료 앞에서 격분한 건 불쌍사나운 장면임에 틀림없다.

샌디에이고 유니온 트리뷴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팸글러 감독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더라도 언어 장벽은 존재한다"고 현실을 인정한 뒤 "리글리 필드 관중석이 팍 차 무척 시끄러웠다"며 관중의 응원도 둘의 콜 플레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3일(한국시간) 컵스전에 출전한 김하성이 같은 팀 팬과 충돌 후 송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당구 늘어난 대회·다양한 중계

정규대회 7회·월드챔피언십

프로당구 PBA가 새 시즌 더 많은 대회와 다양한 채널로 팬들을 찾아간다. PBA가 3월 2021-2022시즌 PBA-LPBA 투어 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오는 14~21일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지난 시즌보다 2개 대회가 늘어난 총 8개 대회(정규 7회, 월드챔피언십)가 열린다.

올 시즌 PBA는 더 다양한 중계 채널로 즐길 수 있다.

기존 'GOLF & SPORTS(골프앤스포츠)' 채널이 'PBA & GOLF' 채널로 새로 단장해 PBA 투어 경기 생중계 전용 채널로 다시 태어난다.

MBC스포츠플러스, SBS스포츠, IB스포츠까지 PBA 경기를 생중계할 4개의 채널을 확보했다. 또한 포털을 통한 인터넷 생중계와 함께 PBA의 유튜브 전용 생중계 플랫폼인 PBA

TV도 첫선을 보일 계획이다.

남자부 PBA는 전 경기를 세트제로 변경한다.

128강부터 64강까지는 3전 2선승제(15-15-15)로 치르며 32강부터는 기존대로 5전 3승제(15-15-15-11), 결승전은 7전 4승제(15-15-15-15-11)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대회 기간이 6일에서 8일로 늘어났다.

여자부 LPBA는 기존대로 32강까지는 서바이벌 방식을 유지하고, 16강부터 세트제에 도입한다. 다만 전후반 각 45분씩 총 90분 경기를 전후반 40분씩 80분 경기로 변경한다. 아울러 여자부 총상금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세계적인 강자 스룽 피아비(캡보디아·블루원리조트), 히다 오리에(일본·SK렌터카)의 LPBA 합류로 새 시즌 여자부 우승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위 축 축
CONGRATULATIONS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류성필 (34회)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환경공학박사)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탄소중립 국가조성을 위해 새롭게 구성되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정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경철 외 회원일동

위 축 축
CONGRATULATIONS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환경공학박사)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탄소중립 국가조성을 위해 새롭게 구성되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녹색회 회장 김민철 외 회원일동

위 축 축
CONGRATULATIONS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환경공학박사)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총동문회 류성필 회장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탄소중립 국가조성을 위해 새롭게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기 85학번 동교회 일동

수 축 상
CONGRATULATIONS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문석찬
(본 협의회 청년회장)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좌중언 외 임원 일동